



지질·곤충·역사문화 등 전문가 탐방 이어져
탐방객 “속살까지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행사 기간 동안 열린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질탐방’ 프로그램이 제주의 지질, 생태, 역사·문화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알리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문가 탐방에서 탐방객들은 “평소 바라보고, 그저 아름답다고만 느껴졌던 김녕·월정리 해변의 속살까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질트레일 행사 첫날 3일 전용문 박사가 진행한 전문가 탐방은 김녕해수욕장 휴게소에서 출발해 세기알해변~도대불~조간대~청굴물~개웃샘굴과 샘물을 거쳐 다시 김녕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1.8km 구간에서 이뤄졌다. 탐방에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있는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가나, 탄자니아 등



강경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의 전문가 탐방(위), 돛제와 손수건 천연염색 체험(아래).

아프리카 국가와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관광객 4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들은 전 박사가 들려주는 동굴 위 마을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둘째 날 4일에는 곤충 전문가 양경식 박사의 전문가 탐방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한 전문가 탐방에서 양 박사는 긴배벌, 뽕잠자리 등을 이야기거리로 삼으며 “뽕잠 색을 띠는 뽕잠자리라는 20년 전까진 인도네시아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온 외래종이었지만 제주에 적응해 살아남으면서 토종이 됐다”며 “대부분의 잠자리가 연못에 사는 것과 달리 이 잠자리는 도심에서도 살며 햇빛에 자동차 보닛이 반짝이는 것을 물론 줄 알고 알을 낳기도 한다”고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또한 양 박사는 미리 채집해 둔 곤충을 꺼내놓으며 곤충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 어린이 탐방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셋째 날 5일에는 강경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이 전문가 탐방을 이끌었다.

이날 강 연구원은 돛제의 흥미로운 유래를 풀어 놓으며 참가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강 연구원은 “돛제 유래설은 참 다양하다”며 김녕사굴에 살고 있는 구렁이에게 제물로 돼지를 바치면서 시작했다는 설, 임도조 선조에 제를 지낸다는 설, 마을 전승 ‘깨내기당 본풀이’의 지시대로 마을의 가호에서 돼지를 잡아 올렸다는 설 등을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김녕의 돛제는 마을의 화합을 의미한다”며 “본래 마을의 안녕을 지내던 것이 일제강점기와 4·3 등을 거치며 가정의 문전제로 변화했다. 지금도 일부 김녕에서는 집에서 돛제를 치르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 연구원은 제주의 바다 풍광과 지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인 김녕해변에서 김녕의 옛 문화인 본향당(큰당) 등을 이야기하며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했다.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행사 마지막 날 6일에는 류춘길 한국지질환경연구소장이 전문가 탐방을 맡았다.

류 소장은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김녕·월정 지역이 지닌 독특한 지질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이날 류 소장은 “김녕·월정 해안은 바다가 에메랄드빛을 띄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강릉의 경포대와 부산 해운대 지역의 해변도 백사장이라 불리지만, 이곳의 모래는 대부분 황색을 띄고 있어 김녕·월정 지역의 바다처럼 에메랄드빛을 띄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메랄드빛을 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얀 모래색이 중요하며 김녕·월정의 모래는 조개 껍질 등이 오랜시간 바다에 의해 깎이며 백색으로 변했다”며 “여기에 다 새까만 현무암이 하얀 모래와 색조가 대비되면서 더욱 선명한 에메랄드빛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탐방객과 함께 김녕해변의 현무암 지대를 찾아 과거 제주의 용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탐방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특별취재반

“공연·체험 풍성… 모두가 하나된 축제”

행사 4일간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은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다양한 볼거리에 즐길거리까지 더해지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하나되게 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행사에선 지역주민도 함께 무대를 꾸몄다. 5일 김녕마을 실버댄스팀이 공연을 선보인 데 이어 행사 마지막날에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전통 민속공연 ‘멀치후리기’ 등이 흥을 더했다.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공연도 마련됐다. 행사 셋째날인 5일 서순실 제주큰굿보존회장이 맡아 진행한 ‘돛제’는 탐방객에게 또 다른 볼거

리가 됐다. 돛제는 수천년 전부터 전해져온 제주만의 독특한 마을공동신앙으로, 마을의 안녕과 도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 내내 이어진 다채로운 공연은 모든 세대를 아울렀다. 가수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를 비롯해 제주 출신 퓨전국악밴드 청월, 제주 인디밴드 투엔, 제주해녀 홍보가수 김은경씨, 홍조밴드 등이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무대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향토장터’도 켜졌다. 월정리와 김녕리 부녀회는 마을에서 난 식재료로 툇두떡밥, 오메기떡, 빕떡, 소라꼬치 등을 판매하며 지역의 맛을

전했다.

손수건 만들기부터 자기명상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탐방객의 발길을 잡았다.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함께하자는 뜻으로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했고, BHP명상 봉사단은 머리와 손끝을 자극하며 마음에 힘을 찾는 ‘브레인 스포츠’를 알렸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연순(경기도 용인)씨는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왔다가 체험 행사까지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며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특별취재반



지난 5일 지질트레일 행사에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전통 민속공연 ‘멀치후리기’.

강희만기자

“아름다운 풍광 두 눈 가득… 잊지 못할 추억”

탐방객들 풍광·공연에 매료

“아름다운 김녕해변의 풍광을 벗삼아 걷고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6일 막을 내린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김녕·월정 지질트레일’에는 행사 내내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도민과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제주의 푸른 바다와 마을 안길 등으로 구비 구비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걸으며 제주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강혜진(울산)씨는 “지인과 함께 김녕해변을 찾았는데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공연소리에 매료돼 행사장을 찾게 됐다”며 “아름다운 김녕해변의 풍광과 함께 좋은 공연도 즐기게 돼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자녀들과 함께 지질트레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이창훈(54)씨는 “김녕해변을 찾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공연소리를 찾아 우연히 행사장을 찾게 됐다”며 “제주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어 좋았고 행사장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특별한 시간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대진(33·서울)씨는 “행사장에 향토

장터 등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제주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행사장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김녕·월정 지질트레일은 제주의 새로운 가치를 알리는 장이기도 했다. 탐방객들은 다양한 모습을 한 제주 지형에 감탄하며 지질트레일 코스에 펼쳐진 풍광을 두 눈 가득 담았다.

제주에서 일할 때 기관장 모임을 통해 맺은 인연과 함께 탐방에 나선 김용관 전 KBS제주방송총국장은 “평소에 늘 다니면서도 지나치던 곳을 자세히 걸어보니 제주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경치보다 지질에 방문을 두고 천천히 걸으니 제주가 새롭게 다가왔다”고 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19 제주의 미래, 청년을 위한

청년DREAM

취업박람회

&

IP(지식재산)

페스티벌

내 직업 찾기 도우미, AI

사전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2019.10.11(금) 13:00 ~ 18:00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이번 행사는?

현장채용면접/해외취업설명회	우수특허기술 전시회	매력적인 부대행사
채용예정기업 24개 참여 해외취업 설명회(호주, 미국) 청년 맞춤형 취 창업 멘토링/컨설팅	전시기업 15개 참여 드론 등 우수기술 체험 IP(지식재산) 우수기업사례 및 세미나	취업특강 (김승준 성우) 특허청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도전! 골든벨(직업/지식재산 관련)

문의사항 •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5 / www.jejuhrd.or.kr
 • 제주지식재산센터 064-755-2554 / www2.ripc.org/regional/jeju/main.do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특허청

주관 제주상공회의소
한국발명진흥회
IRPC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지역

JTP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UINC+사업단